

## 보도

## 미래창조스쿨 설립은 되나 남은 기간 3달, 일방 추진 우려도

김도엽 기자 wogmd567@knu.ac.kr

미래창조스쿨이 설립에 난항을 겪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지난 9월 교육과정을 발표하고 학생수요 조사를 진행해야 했지만,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목표했던 2017학년도 1학기 개설까지 남은 시간은 약 3달 뿐이다. 앞으로 미래창조스쿨의 진행방향이 더욱 궁금해 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이에 대해 21세기혁신위원회 유정완 사무총장을 만나 현재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미래창조스쿨은 추진 전부터 논란이 많았다. 지난 8월 구성원들은 미래창조스쿨 추진안에 대해 알지 못한채, 외부 언론을 통해 처음 관련 소식을 접했다. 서울캠퍼스(서울캠) 총학생회는 미래창조스쿨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유 사무총장에게 요청했고, 서울캠 교수의회(의장 : 유원준 교수)는 대자보를 통해 미래창조스쿨 중단을 요구했다.〈관련기사 : 대학주보 1610호 6면〉

## 출범까지 남은 3달의 기간

## 동계방학과 겹쳐 일방 추진 우려돼

미래창조스쿨은 관련 교과들의 이수를 통해 졸업 시 미래창조스쿨 이수를 인정하는 인증서를 부여한다. 추진 교육과정(안)에 따르면 필수교육과정은 'Core-Track 1,2'(가칭) 2가지 트레이스, 분야별 교육실천 프로그램은 '취업', '창업', '사회 진출', '새로운 삶의 방식'(가칭) 4가지 트랙으로 구성된다. 인증받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필수교육과정을 이수 후 분야별 교육실천 프로그램 중 한 개 과정을 이수하면 된다. 유 사무총장은 "아직까지 교육과정에 대한 확정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재 "교육과정에 대한 초안 자료를 모으고 있으며, 학생들과의 소통을 거쳐 2017년 1학기 개설을 계획 중이다"라고 말했다. 추가적으로 유 사무총장은 "1학기 시행 후 수정과 보완을 거쳐 2학기에는 완전히 시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2011년 출범 이후 '인문학' 중심의 교육과정을 유지해온 후마니타스칼리지가 취업·창업의 교육을 지향하는 것은 기존의 기조를 잊고, 대학이 취업사관학교로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유 사무총장은 "우

리학교 취업률이 60%에도 미치지 못한다. 처음 기획 의도는 미취업자 40%에 대한 대학의 책임으로부터 시작됐다"라며 "양 날의 칼이다. 현재의 대학은 상아탑도, 취업사관학교도 아니지만 취업·창업 부분 강좌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를 대학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의명을 요구한 A학생은 "미래창조스쿨 인증서가 앞으로의 취업에 실효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졸업장에 인증했다는 표시가 없는 것 보다는 있는 것이 더 나을 수 있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B학생은 "기존에 후마니타스칼리지가 지향해온 방식을 한 번에 깨트리는 일이다"라며 "대학이 취업을 위한 공간으로 허려가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현재 미래창조스쿨 교육 실천 프로그램 개발을 담당하는 우기동(지구사회봉사단) 교수는 "프로그램 구성에 교수나 직원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7월 발표된 '경희 미래창조스쿨 설립 추진(안)'에 따르면 9월에 교육과정(안)을 발표 후 학생수요조사와 인식조사를 할 예정이었지만, 현재까지 초안도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약 4개월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우 교수는 "8월 중 논의가 이뤄졌어야 했지만 미래창조스쿨 설립위원회 기구문제, 인선문제 등으로 늦춰지고 있는 것 같다"며 "미래창조스쿨 설립이 학생들을 위한 것임을 인식하고 있다면 대학본부 측이 행정적인 부분에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 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유 사무총장은 2017년도 1학기 개강 전 미래창조스쿨 교육과정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신청을 받겠다고 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은 약 3달 뿐이고 그마저도 동계 방학과 겹쳐 구성원에게 충분한 공지 없이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유 사무총장은 "학생혁신기획단들을 선발한 상태이며 각 기획위원회에 100명 정도의 설문조사와 흥보를 요청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제캠퍼스 학생혁신위원회 단장은 "미래창조스쿨은 학생혁신위원회 내부에서도 학교 측과 학생 사이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라며 "학생혁신위원회들이 직접 학생들에게 소개를 하고 설문을 받는 방식으로 학기가 끝나기 전에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국제캠퍼스 총학생회장의 연임에 대한 기사도 파장을 일으켰다. 총학생회장 사퇴와 이어 연임 도전에 대한 관련기사는 수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남기며 10,002건, 6,152건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대학주보 홈페이지에 등록된 댓글들을 확인해 본 결과,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채 사퇴하는 것에 대한 비판과 사상 초유의 연임 도전

## 찻집 '녹원 폐업' 기사 최다 조회 국제 총학회장 사퇴도 1만 조회 관심

## 2016 대학주보 기사 분석

김규래 기자 rlarbfo41@kn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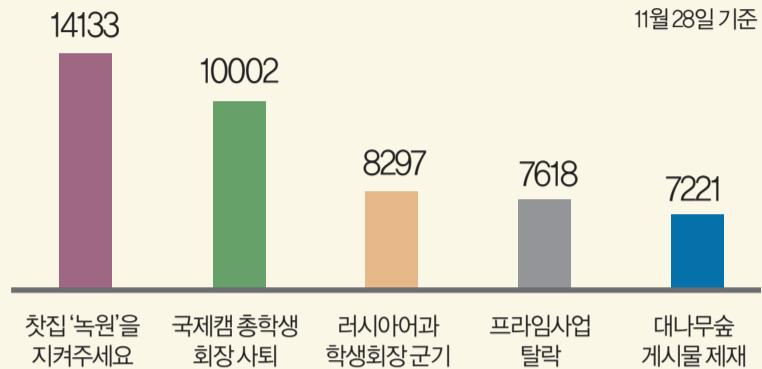
우리 신문에서 올 한해 쓰인 기사를 분석한 결과, 독자들의 관심 지표인 조회수가 가장 높았던 기사는 "전통 찻집 '녹원'의 역사를 함께 지켜주세요"로 나타났다. 이 기사는 32년간 회기동에서 자리를 지킨 찻집 '녹원'이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 위기에 몰렸다는 내용이다. 14,133건의 조회 수를 기록해 올해 쓰인 기사 중 가장 많이 읽혔다. 지난해 조회 수가 가장 높았던 기사는 조회 수 8,434를 기록했던 '17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영성반점 간판 내린다'라는 기사였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역사회에 대한 기사가 가장 많은 조회 수를 기록했다.

우리 신문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536건의 뉴스 콘텐츠를 생산했으며, 기사당 평균 조회 수는 약 824.6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조회 수가 많은 상위 20개 기사 평균 조회 수는 약 6,053건이었다. 작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기사당 평균 조회 수는 약 753건이었고, 조회 수 상위 20개 기사 평균은 약 4,468건이었다. 1년 사이에 기사당 평균 조회 수가 약 71건 상승했고, 조회 수가 높았던 큰 사안을 다룬 기사는 약 1,600건의 평균 조회 수가 상승하며 과급력이 더욱 커졌다.

올해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는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이나 갈등을 유발하는 주제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상반기에 있었던 프라임 사업은 많은 갈등을 낳으며 구성원들의 관심을 끌었다. 사업 준비 과정부터 지속됐던 대학본부 측과 학생들의 대립은 탈락이라는 결과를 가져왔고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프라임 사업 관련 기사는 조회 수 상위 10개 기사에 3개가 포함됐으며, 각각 7,618건, 6,840건, 6,209건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국제캠퍼스 총학생회장의 연임에 대한 기사도 파장을 일으켰다. 총학생회장 사퇴와 이어 연임 도전에 대한 관련기사는 수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남기며 10,002건, 6,152건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대학주보 홈페이지에 등록된 댓글들을 확인해 본 결과,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채 사퇴하는 것에 대한 비판과 사상 초유의 연임 도전

## 2016년 조회수 상위 5개 기사



11월 28일 기준

## 기사 평균 조회수



에 대해 걱정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올 한해는 논란거리도 끊이질 않았다. 러시아어과 전 학생회장이 개인 페이스북에 '선후배간 위계질서'가 없다며 저학번을 비난하는 글을 작성해 논란이 됐다. 악습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신입생들에게 부당함을 강요하는 상황은 러시아어과 학생들을 비롯해 다수의 타 과 학생들까지 분개하게 했다.

또한 학내 성 갈등도 많은 논란거리를 낳았다. 경희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스북 페이지에 강압적인 술자리에서 피해를 받았다는 글이 게시되자 가해자의 성별을 묻는 댓글이 달렸고, 이내 가해자에 성별 프레임을 씌우려 하느냐는 논쟁이 이어졌다. 이 사건은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이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성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해 생각해볼 계기를 던진 사건이었다. 논란이 된 두 사건은 각각 8,297건, 7,221건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댓글이 가장 많았던 기사는 프라임 사업 관련기사가 압도적이었다. 댓글 수를 기준으로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프라임 사업 관련기사였다. 5개의 기사에만 댓글이 622개 등록됐는데, 계산하면 기사 한

건당 평균 124.4개의 댓글인 셈이다. 올해 뿐 아니라 작년의 댓글 지표를 살펴봐도 프라임 사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는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작년에는 무려 댓글 수 상위 10개 기사가 모두 프라임 사업과 관련된 기사였다. 캠퍼스 간 불분명한 이원화 문제를 비롯해 프라임 사업 준비과정까지 학생들의 10개 기사에서 총 1,075개의 의견이 등록됐다.

우리 신문이 올해 발행한 기사의 평균 댓글 개수가 3.1개, 작년 기준 2.5개인 것을 감안하면 프라임 사업은 많은 학생들이 관심 있게 지켜봤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한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프라임 사업을 기회로 삼아 캠퍼스 통합을 이루어내려 했지만 사업에 탈락한 현 상황에서 통합에 다르기 위한 대안이 요구된다.

우리 신문은 올 한해 종이신문으로 기사를 배포하던 방식을 축소하고, 모바일 퍼스트를 지향하며 대학주보 페이스북 페이지, 이메일 뉴스레터 등으로 기사 전달에 힘썼다. 그 결과 기사 조회 수, 댓글 수의 상승을 이끌어내며 독자와 소통 확대를 이끌어냈다. 내년에도 다방면으로 기사를 생산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독자를 찾아가는 대학주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 12월 둘째 주(12.05-12.09) 취업진로 프로그램 안내

'취업·진로 준비!! 취업진로지원처와 함께 하세요.'

## 1. 기업체 채용행사 및 취업특강

행사 명	일 시	장 소	비 고
투이컨설팅 채용설명회	12.09(금) 15:00~16:00	중앙도서관 1층 시청각실	채용부문: 빅데이터 분석, 경영관리, 컨설팅(프로젝트관리, 디지털 혁신, 글로벌, 기술체계, 데이터풀질)

※ 위 일정은 기업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첨기방법: 사전 신청 필요(행사 당일까지 가능)

종합 정보시스템 - 인터넷 신청 - 연수 신청 - 해당 설명회 '신청하기' 클릭 - 완료

※ 신청 후 '합격여부'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 사전 신청 학생 및 당일 현장 신청도 가능하며, 신청서는 당일 해당 장소 출입문 쪽에 비치 함.

◆ 출석 협조전 발급: 각 채용설명회 종료 후 현장 설명회장 입구에서 발급 및 배부

◆ 기타 사항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와 함께 참조.

## 2. 취업진로지도 및 출 출 컨설팅 (취업상담)

◆ 대상: 본교 학부 재학생, 졸업생

상담유형	일 시	담당 컨설턴트	장 소	신청방법
개인	월요일 ~ 금요일 (전문 컨설턴트)	이연미, 오신종	오비스홀 354호, 356호	종합정보시스템 '수업/성적/상담' 신청
		박언경	제1법학관 107-2호	
		홍상기	청운관 6번 상담실	

◆ 상담 내용: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법 지도, 면접스킬 지도, 기업 및 직무 분석법, 로스쿨 진학 등

◆ 상담 신청자 의무: 취업준비도 검사(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하단에 위치) 상담 전·후 각 1회(총 2회) 필수

## ◆ 주의사항

- 상담 당일 최소 불가(상담 당일 전까지 가능, 최소 시 전화 연락)

-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한 경우 당일 2부씩 출력하여 자침(필수)

## 3. 취업진로지도 및 출 컨설팅 (진로상담)

◆ 대상: 본교 학부 재학생(1~3학년)

◆ 상담 내용: 진로의 선택의 중요성, 진로선택 방법, 취업진로지원처 소개 등

상담유형	일 시	컨 설 턴 트	장 소	신청방법
진로 상담	12.09(금) 15:00~16:00	한상백	청운관 1층 취업진로지원처 회의실	종합정보시스템 '수업/성적/상담' 메뉴에서 신청

자세한 사항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해 주세요

## 서울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 2016학년도 2학기 강의평가 실시 안내

2016학년도 2학기 '강의평가'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모든 재학생들은 '강의평가'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평가 결과는 수업의 질 개선과 신규과목 개설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한 평가를 위해 학생들의 신중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합니다.

※ 강의평가 변동사항(2016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

- 수시평가가 폐지되고 학기말 평가만 실시
- 문항수가 10개에서 9개로 변경
- 텁티칭 강좌는 1회만 평가
- 수업유형과 관계없이 공통 문항으로 실시

1. 기 간 : 2016.12.01(목) ~ 12.29(목)

2. 대 상 : 서울·국제 캠퍼스 재학생(학부 및 대학원생)

3. 대상강좌 : 학부 및 대학원 전체 개설 강좌

4. 성적 열람 및 공지 기간 : 2016.12.30(금) ~ 2017.01.03(화)

5. 강의평가 실시 여부에 따른 성적 조회 기간